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현황과 과제

홍순권 / 동아대학교 사학과

目 次

I. 머리말	2. 항쟁의 주체와 참여층
II. 시기별 연구경향의 변화추이	3. 부마항쟁의 역사적 위상과 자리매김
1. 1980년대의 연구성과와 연구경향	4. 그 밖의 문제들
2. 1990년대의 연구성과와 연구경향	IV. 맺 음 말
3. 2000년대의 연구성과와 연구경향	
III. 쟁점별 연구성과의 비교분석	참고문헌
1. 원인과 배경	국문초록, Abstract

I. 머리말

부마민주항쟁(이하 ‘부마항쟁’으로 줄임)이 일어난 지 이제 한 세대를 넘는 세월이 흘렀다. 부마항쟁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된 사건이고, 유신체제 하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이후 역사 전개에 미친 영향이 자못 컸다는 사실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더욱이 지역사적으로 본다면 4월 혁명 이후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부마항쟁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운동사에서 하나의 전환점을 이룬 중요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되어 왔다.

지역운동사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한국 민주운동사의 전체 흐름에 비추어 보아도 부마항쟁이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이 중요한 만큼, 부산지역에서는 거의 매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부마항쟁기념일이 가까워지면 부마항쟁이 일반국민들로부터 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부마항쟁에 대한 일반 시민의 역사적 망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다. 오늘날도 부산지역의 많은 연구자들에게 부마항쟁이 왜 그렇게 쉽게 잊혀졌는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 있다. 실제로 19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과는 달리 1979년 10월의 부마항쟁은 부산지역 외부에서는 물론 항쟁의 발생지인 부산지역 안에서조차 그러한 망각 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아쉬움과 의문이 부마항쟁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는 동력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부마항쟁은 1979년의 일회적 사건이지만, 그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일회적이지 않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역사적 평가 기준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역사 해석의 다양성이 부마항쟁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방해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부마항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심화시키는 데 기여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그동안 진행되어 온 부마항쟁의 학술적 성과를 총괄적으로 짚어보면서, 그동안 시기별 연구경향과 주요 쟁점 사항을 정리함으로써 향후 연구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이 글에서는 학술지 등에 논문 형식으로 발표된 글과 단행본으로 간행된 저작물을 기본적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글의 전개상 필요에 따라 학술대

회의 발제문이나 일부 자료집도 서술에 참고하였다. 또 이 글은 기존의 연구 성과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연구의 경향성을 밝히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개별 논문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는 가능한 한 삼갔다.

II. 시기별 연구경향의 변화추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그 성과물의 압도적 다수가 부산지역 연구자들에 의해 생산되어 왔다는 점이다. 그 중에서도 연구의 구심체가 된 것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1997년 1월 ‘사단법인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로 명칭 변경, 이하 ‘사업회’로 줄임) 및 그 산하 단체인 민주주의사회연구소로 이 두 단체가 부마항쟁 연구를 선도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회는 1989년 사업회가 조직된 이후 거의 매년 기념행사를 주관해오면서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학술심포지움을 개최해 왔다. 동시에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을 주기로 기념사업의 차원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총괄하는 사업도 함께 진행해 왔다. 물론 부마항쟁 연구가 부산지역 연구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다. 부산지역에서 시작된 부마항쟁 연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꾸준히 이어졌다. 최근 들어서는 서울, 광주 등 외부 지역의 연구단체나 외부 지역 연구자들과의 공동연구나 공동행사도 활성화되고 있다.¹⁾

1) 공동 연구 또는 공동 학술행사의 사례와 관련해서 일찌기 2004년 10월 8일 개최된 부마민주항쟁 2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주제: 부마민주항쟁 이후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반민주)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공원, 민주연구단체협

그동안 부마항쟁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가 축적되었다. 이 글에서는 주로 논문으로 발표된 학술적 연구 성과만을 검토 대상으로 삼았지만, 그동안 생산된 자료집과 구술 증언록도 적지 않다. 따라서 30여 년간에 걸쳐서 생산된 연구 성과들을 일괄하여 검토하기에는 양도 많고 그동안 연구 경향의 변화상을 파악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198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정치적 변화 추이에 맞추어 10년 단위로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등 세 시기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연구경향의 흐름과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기구분은 부마항쟁의 매 10주년 주기와의 일치하는 것으로 각 시기마다의 연구 방향과 과제 설정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 1980년대의 연구 성과와 연구경향

부마항쟁 발생 이후 첫 10년간인 1980년대에 생산된 부마항쟁 관련 연구 성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 특히 부마항쟁을 공식적으로는 ‘부마사태’로 명명할 수밖에 없었던 1987년 민주화 이전 시기에는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나 평가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도 부마항쟁

의모임 등이 공동으로 주최한 바 있다. 이후 2007년 10월 30일 부마민주항쟁 28주년기념 학술심포지움(주제: 부산 민중의 삶과 정치의식)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6·15공동선언남측위원 부산본부가 공동 주최하였고, 2009년 10월 9일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주제: 박정희 체제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마항쟁기념사업회, 5·18기념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그리고 2010 10월 15일 부마민주항쟁 31주년 5·18광주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주제 :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지역적 전개)은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5·18기념재단이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기고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노력은 암암리에 꾸준히 이어져 왔다. 부산대학교 민주화추진위원회가 발행한 「새벽 함성」(1984),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의 「거역의 밤을 불살라」(1985.10) 등은 당시 민주화운동세력이 서술한 초기의 역사 기록이라고 할 수 있다. 또 10·19 마산 민주항쟁에 대해서는 박영주가 지역의 학술잡지인 『마산문화』 제4호(1985)에 마산민주항쟁의 전개과정을 소개한 것이 최초의 공식적 학술연구로 보여진다.²⁾ 같은 해 이수언이 『신동아』 1985년 5월호에 르포르타주 기사인 “부마사태의 전모를 밝힌다”를 실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평가하고 이의 대중화를 시도하였다. 이어서 1987년에 발간된 조갑제의 『유고!: 부마사태에서 10·26정변까지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함성과 총성의 현장』(1)(2)는 국제신보 기자의 신분으로 현장을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마항쟁 전후사를 정리해 놓아 향후 부마항쟁을 연구하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었다.

1980년대에 정리된 이러한 글들은 부마항쟁의 배경이나 원인, 그 역사적 의미에 대한 심층적 분석보다는 부마항쟁의 전개과정을 가능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사실적으로 기술하여 이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사실상 독재정권 하에서 정보가 통제되고 있었던 시기에는 부마항쟁의 진실을 널리 알리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객관적 접근과 학술적인 분석은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부마항쟁의 의의를 한국 현대의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2) 이 글은 1989년 부마항쟁기념사업회가 발간한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 기획논문의 일부로서 ‘10·18 마산민주항쟁의 전개과정’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다.

조망해 보는 종합적인 시도가 이루어진 것은 부마항쟁 10주년이 되는 해인 1989년에야 가능했다. 이 해에 발표된 정광민의 「부마항쟁 10년 되새겨보는 역사적 의미」(『사회와 사상』 통권 15호, 1989)가 그것이다. 이는 부마항쟁의 직접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동안 진행되어 온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반추해 보면서 이를 정리한 것이지만, 자료의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부마항쟁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 최초의 학술적 시도로 평가될 수 있다. 이 논문에서 확인되는 부마항쟁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1989년 부마항쟁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사업회가 내놓은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1989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발간한 『부마민주항쟁 10주년 기념 자료집』은 사실상 부마항쟁 발생 이후 부마항쟁을 전면적으로 다룬 최초의 자료집이자, 1980년대 부마항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을 종합한 집단적 연구성과물이다. 『자료집』은 문헌과 문건, 증언, 기획논문,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문헌·문건은 1979년 10월 부마항쟁 당시의 선언문 3건을 비롯하여, 당시 경남매일 기자가 작성한 신문사 취재 자료, 부산시경의 '79 부마사태의 분석', 정인권 등의 공소장 사본, 사건 발생 당시의 신문 기사 자료 등 1차 사료를 수록하고 있다. 증언은 부산편과 마산편으로 나누어 정광민 등 항쟁에 참여하거나 항쟁을 목격했던 부산지역 증언자 17명과 마산지역 증언자 14명의 증언 구술을 수록하였다. 기획 논문은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이라는 대주제 하에 ①부마민주항쟁의 사회경제적 배경, ②부마민주항쟁의 정치운동적 배경, ③부마민주항쟁의 전개과정, ④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 ⑤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평가 등 5개의 소주제 나누어 서술하였다.

『자료집』에 실린 여러 소주제들은 그것이 공동연구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으로는 각각 독립된 하나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그 가운데 「10·18 마산민중항쟁의 전개과정」은 논문의 말미에 밝히고 있듯이 『마산문화』 전 편집장 박영주가 집필하여 『마산문화』 4호(1985년 12월)에 이미 게재했던 것으로서 당시 약 50여명의 관계자 증언을 토대로 쓰여진 것이다. 이처럼 『자료집』에 실린 기획 논문인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은 비록 복수의 필자에 의해 집필되었지만, 부마항쟁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평가는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이 기획논문에서는 부마항쟁의 주체를 민중으로, 그 성격을 민족민주운동으로 규정하였다.³⁾ 부마항쟁에 민주운동의 성격과 더불어 민족운동의 성격을 부여한 것은 이 『자료집』의 발간 이후 다른 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나 부마항쟁을 민중이 주체가 된 민주운동으로 보는 관점은 이후의 연구에도 큰 영향을 미쳐, 많은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이러한 관점을 계승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료집』의 부록에서는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창립선언문 등 5건의 문건이 수록되었다. 이러한 『자료집』의 발간이 지니는 의의는 무엇보다도 이것이 향후 부마항쟁 연구의 초석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자료집』에 수록된 부마항쟁 참가자 31명의 증언 구술 기록은 부마항쟁의 전개과정을 복원하고 그 실상을 이해하는 데 더 없이 중요한 일차적 기초자료가 되었다. 또 그동안 ‘부마사태’로 불리어 오던 사건의 명칭이 1989년

3) 『자료집』에서는 이러한 성격 규정에 대하여 “비록 부마항쟁이 반독재항쟁의 외형적 형태로 전개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본질적으로 외세와 신식민지 파시즘적 지배블럭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민족민주운동으로서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며 군사독재정권의 교체(민주화)를 통해 기존의 사회질서에 대한 재편을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자료집』, 309쪽 참조)

10주년의 기념자료집 발간을 통해 비로소 ‘부마민주항쟁’으로 공식화 되었다는 점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부마항쟁의 민주적 복권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1990년대의 연구 성과와 연구경향

1990년대 들어서 부마항쟁 연구는 양적인 측면에서만 보아도 종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늘어났다. 무엇보다 사업회가 매년 10월 부마항쟁 기념행사와 함께 학술행사를 개최한 것이 부산지역 안팎에서 부마항쟁 연구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들어서 처음 나온 부마항쟁에 관한 연구 성과는 5·18 광주민중항쟁동지회가 편찬한 『부마에서 광주까지』(샘물, 1990)⁴⁾이다. 이 책의 발간 목적은 ‘책 머리에’에서 “광주민중항쟁은 80년 전·후한 시대의 격변기속에서 철저히 재조명해야 함에 부마항쟁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연관관계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듯이 광주항쟁에 대한 역사적 성찰의 필요성에서 부마항쟁을 재해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하나의 연관된 사건으로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부마항쟁을 이해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⁵⁾ 『부마에서 광주까지』에서 다룬 부마항쟁의 전개과정에 대한 서술은 1989년 10주년의 『자료집』의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부마항쟁의 의의와 배경에 관해서 1970년대 말 한국사회의 사회

4) 이 책은 1990년 2월 발간되었지만, ‘책 머리에’를 쓴 날짜가 1989년 10월로 적혀진 것으로 보아 사실상 1980년대 광주항쟁 연구의 종합적 성과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5) 그러나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에 대한 본격적인 비교 분석은 이후 오랫동안 정제되었다가 1990년대 말 박철규(1999)의 연구에서 이루어졌다.

·경제적 운동역량을 평가한 위에서 1970년대 부산지역 민족민주운동의 역량과 부산·마산지역의 특수성 분석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 눈에 뜨인다. 부마항쟁의 의의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반유신독재민주항쟁’으로 규정하면서 유신체제의 몰락을 가져오게 한 최초의 그리고 최후의 대규모 민주항쟁이었다고 정의하였다. 즉 부마항쟁을 1970년대 한국사회 전체의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성곽이며 새로운 민주화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부마항쟁을 계기로 “지역민중의 내재적 혁명성이 폭발적으로 분출됨으로써 지역운동의 현실적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지적하면서 부마항쟁이 지닌 지역운동사적인 의미에 대해서도 각별히 주목하였다. 그러면서도 이 책에서는 “대중운동을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도할 수 있는 연대의 틀이 없었다”는 점을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의 공통된 한계로 지적하였다.⁶⁾

1990년대 부산지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부마항쟁 연구의 경향은 큰 틀에서 볼 때 그동안 밝혀진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부마항쟁을 한국민주주의의 발전과정에서 어떻게 위치지우냐를 해명하는 데 역점이 두어졌다. 비록 공식 논문으로 출간되지는 않았지만, 1994년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주최의 부마민주항쟁 15주년 기념 심포지움과 1995년 열린 부마항쟁 기념 16주년의 토론회는 바로 그러한 과제에 대한 방향 설정을 행사 주제로 삼았다.⁷⁾ 이렇게 사업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부마항쟁의 역사적

6) 『부마에서 광주까지』 (1990), 73~74쪽.

7) 1994년 10월 17일 개최된 부마민주항쟁 15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움 주제는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민주개혁의 진로’였고, 1995년 10월 16일 개최된 부마민주항쟁 16주년 기념 토론회의 주제는 ‘부산지역 사회운동의 방향과 과제’였다.

위상의 정립 시도는 1998년 『부산민주운동사』의 편찬으로 귀결되었다. 이 책은 비록 부산광역시의 지원에 힘입어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의 이름으로 발간되었지만, 실제 편찬위원회의 구성과 집필진을 보면 당시 부마항쟁기념사업회와 관련된 인사와 연구자들이 편찬 작업에 대거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부마항쟁기념사업회의 연구 성과로 평가해도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 『부산민주운동사』에서는 부마항쟁을 6월항쟁과 더불어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금자탑으로 규정하였다. 즉, 『부산민주운동사』에서는 “사실 1979년 부마항쟁에서 1987년 6월항쟁까지의 약 9년간은 그동안 민주운동의 변방으로 취급받아 온 부산지역이 민주화 운동의 중심을 자리잡는 시기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⁸⁾라고 지적하여, 부마항쟁이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전환점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로 인해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부산지역의 자존심이 회복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부여하였다.

『부산민주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 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부산민주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은 제5장 「유신체제하 1970년대 부산지역 민주운동」의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제5장은 제1절 개관, 제2절 「1970년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전개」와 제3절 「부마민주항쟁」으로 구성되어 있다.⁹⁾ 『부산민주운동사』의 이러한 서술체계는 부마민주항쟁이 1970년대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필연적 귀결이었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제3절의 「부마민주항쟁」은 ①발생 배경, ②발발과 부산지역에서의 전개, ③성격과 그 역사적 의의로 나누어 서술하고

8) 『부산민주운동사』, 13쪽.

9) 『부산민주운동사』 제5장의 제1절 개관에서는 1970년대 민주화운동을 형성기, 잠복기, 상승기로 구분하고 있다.

있다. 여기에서 부마항쟁의 발생 배경으로 유신체제의 억압적 정치경제구조와 부산지역의 특수성, 그리고 부산지역 운동세력의 성장과 재생산기반의 구축 등이 두루 지적되고 있다. 『부산민주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의 발생 배경으로 1970년대 부산지역 운동세력의 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마항쟁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우연적 사건이 아님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부산민주운동사』에서 부마항쟁의 전개과정에 관한 서술은 기존의 자료집이나 연구서의 서술 내용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으나, 다만 부산에 초점을 두어 서술한 관계로 마산에서의 항쟁은 다루지 않았다. 특히 이 책에서는 부마항쟁의 성격 규정과 관련하여 부마항쟁은 시민항쟁이라기 보다는 ‘조직적 지도부가 없는’ 민중항쟁이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처럼 『부산민주운동사』는 1989년의 『자료집』에서 보여준 민중주체론의 역사인식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다. 또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에 대해서는 그것을 ‘미완의 항쟁’으로 규정하면서도 부마항쟁은 “1970년대 반유신운동의 귀결점이자 총결산이었다”고 하여 그것이 지닌 반유신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고 있다.¹⁰⁾

부마항쟁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부산민주운동사』는 그동안 부마항쟁이 10·26정변의 그늘에 가려 한국민주화운동사의 한 장으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¹¹⁾ 다른 한편으로 이 책은 그 자체로서 보면 부마항쟁을 부산민주운동사의 전체적 흐름 속에서 조망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부마항쟁과 1980년대 민주화운동, 특히 6월항쟁을 시계열적으로 나열하였을 뿐으로, 이러

10) 『부산민주운동사』, 429쪽.

11) 『부산민주운동사』, 387쪽 및 430쪽.

한 운동들간의 연속성과 관련하여 그 인과적 관계를 적극적으로 담아내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부마항쟁 관련 학술행사와 부산지역의 민주운동에 관한 통사적 서술 작업이 활발히 진행되었던 것에 비추어 보면, 1990년대 발표된 부마항쟁에 관한 개인적 연구는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그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유영국(1987)의 논문과 박철규(1999)의 연구 성과를 들 수 있다. 두 논문 모두 비교사적 관점에서 부마항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전자는 6월항쟁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서, 후자는 앞서 언급했듯이 광주항쟁과 비교 분석을 통해서 부마항쟁의 성격과 위상을 새롭게 조망하였다. 이러한 비교사적 연구를 통해서 부마항쟁이 전후 한국 민주운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위상이 더 한층 분명해지고 구체화되었으며, 그 결과 부마항쟁에 대한 종전의 인식도 한 단계 더 심화되어 갔다.

유영국은 사건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에서 부마항쟁과 6월항쟁 간에는 많은 유사점이 있음을 지적하면서도 그 차이점에 더욱 주목하였다. 그에 의하면, 6월항쟁이 대체로 중간층 시민에 도시빈민 중심의 기층민중이 가세한 '시민적 항쟁'의 성격을 띤 반면에, 부마항쟁은 도시빈민 중심의 기층민중이 위주가 되고 거기에 학생 및 중간층 시민들이 가세한 '민중적 항쟁'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그러나 6월항쟁의 성격에 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서라도, 부마항쟁에 관한 이러한 분석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견지해 온 민중항쟁론적 인식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체계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철규의 논문은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을 하나의 연속적 사건으로 기술한 『부마에서 광주까지』(1990)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건의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두 사건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는 점에 연구사적 의의가 있다. 즉, 이 글에서는 부마항쟁이 5.18광주항쟁의 전사를 이룬다는 전제하에 두 사건의 발생 배경과 전개과정, 주체세력과 지도부의 성격, 투쟁양상을 비교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박철규는 두 사건이 지역단위에서 더욱 증폭되어 전개된 ‘반독재민주항쟁’이며 ‘미완의 항쟁’이라는 동일성을 지닌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지배블력의 대응 방식, 상설적인 항쟁 지도부의 유무, 그리고 투쟁 양상 등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¹²⁾ 그런데 이 글이 발표되었던 1990년대는 한창 지역주의 문제가 사회정치적 담론으로 고조되었던 시기임을 상기해 볼 때, 이러한 분석 시도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염두에 두고 쓰여진 글로도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두 사건의 동일성과 차이점을 강조하면서도 한국사회운동사에 두 사건의 인과적 관계가 지니는 역사적 함의를 명백히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1990년대 발표된 부마항쟁에 관한 또 다른 학술적 성과는 이은진의 논문을 들 수 있다. 이은진(1998)은 부마항쟁 중에서 특히 10·18 마산 민주항쟁을 분석한 것인데, 제목에서처럼 항쟁에 참여한 행위 주체들의 성분 분석과 함께 그들에 의한 집합행동의 발생조건, 진행과정, 진행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항쟁을 발생시킨 구조를 운동과 연결시키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 논문은 필자가 밝히고 있듯이 사회학적 연구대상 부마항쟁을 해석함과 동시에 박정희 시대의 전반적인 사회흐름을 평가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¹³⁾

이밖에 부마항쟁 20주년이 되는 1999년에는 부마민주항쟁20주

12) 『5.18은 끝났는가』(1999), 198쪽.

13) 이은진(1998), 259~260쪽.

년기념사업회 주최로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라는 제목 아래 ‘부마민주항쟁 20주년 기념학술심포지움’이 개최되었다. 이 학술심포지움에서는 정근식의 「한국 민주화와 부마항쟁」, 주대환의 「부마항쟁과 시민정신」 등 나름대로 주목할 만 한 주제 발제가 있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 때 발표된 글들은 학술심포지움 자료집에 수록되었을 뿐 학술지에 정식 논문으로 게재되지는 않았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공간은 그 자체로서 새로운 연구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를 위한 촉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 김재홍(1994)의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진술』(상)에 수록된 ‘비공개재판 속의 김재규 진술’도 일례이다. 이 자료는 부마항쟁 직후 박정희를 살해하여 유신체제를 무너뜨린 10·26 사건의 주역이었던 김재규의 재판과정에서의 진술을 정리한 것으로 이후 부마항쟁과 10·26사건의 밀접한 계기적 연관성을 설명하는 근거 자료로 연구자들에 의해 자주 활용되었다.

3. 2000년대의 연구성과와 연구경향

2000년대 들어서 부마항쟁 연구는 그 절정에 달하였다. 양적으로도 종전과는 비교 안될 만큼 많은 연구들이 쏟아져 나와 20편 이상의 논문이 학술지와 각종 단행본을 통해서 발표되었다. 또 개인 저작에 이어 박사학위 논문으로까지 연구가 심화되었다. 부마항쟁 연구는 2003년에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으로 집대성되었고, 이후에도 다양한 각도로 부마항쟁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2000년대 들어서 부마항쟁의 연구가 열기를 띠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1999년 10월 민주공원(민주항쟁기념관)의 개관에 이어 2000년 7월 산하 단체인 민주주

의연구소가 창립된 사실을 들 수 있다. 민주주의연구소의 주요 설립 목적이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연구하고 정리하는 데 있는 만큼 부마항쟁의 연구는 이 연구소가 떠맡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사업이 되었다. 이처럼 부산지역 내 부마항쟁 연구의 중심적 토대가 구축되어 연구자들의 상호 교류와 공동연구가 가능해짐에 따라 부마항쟁 연구가 크게 활성화되었다. 민주주의연구소는 창립 이후 학술지인 『민주주의와 인권』 등을 발행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부마항쟁과 관련하여 민주주의를 주제로 한 공동 연구를 기획하고 학술심포지움 등 학술행사를 통해 그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는 일에 노력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김영삼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이래 김대중 정부하에서의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의 설립, 민주화운동 보상법 제정, 노무현 정부하에서의 국방부 등 정부 각 기관의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설립 등 한국현대사를 재정리하려는 일련의 정치적 환경의 조성이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거사 정리 사업’은 부마항쟁에 대한 연구열을 크게 자극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각 단체와 개인이 기획하여 발굴한 새로운 구술 증언의 채록과 설문조사 결과, 각 정부 위원회의 조사 활동 결과 생산된 보고서 등 다양한 부마항쟁 관련 자료들이 이 기간 동안 축적되었다.¹⁴⁾

14) 이 시기에 나온 중요한 발굴 자료로 민주공원,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인명록 발간사업 최종 보고서』(2003.12)와 (사)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부산민중의 삶과 정치의식』(2008.2)에 수록된 차성환의 「부마항쟁 참여자 및 목격자 설문조사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전자에는 부마항쟁에 연루되었던 인물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며, 후자는 부마항쟁에 참여했거나 목격한 일반 시민 400명을 표집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보고서이다. 또 2010년 5월 25일 진실화해위원회가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이제 2000년대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들을 살펴보자. 우선 2000년에는 임현진, 정근식, 김석준, 김경호 등의 연구가 나왔는데 무엇보다 부산지역 외부 연구자들에 의해 부마항쟁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 성과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특히 2000년은 '광주민중항쟁' 20주년이 되는 해로 이 해에는 1980년 5·18 광주항쟁과 더불어 1979년 부마항쟁을 한국 민주화운동사에서 어떻게 위치지울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의 연구는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에 특정한 사건사적인 연구보다는 1960년 4월혁명 부터 1980년대에 이르는 독재정권 시기를 하나의 역사적 변동기로 파악하고 그 시기에 일어난 여러 민주화운동들의 계기적 연관성을 정치사적 관점에서 포착하려는 경향을 띠게 되었다.

임현진(2000)은 부마항쟁이 이후 민주화의 전주곡이 되었지만, 유신체제의 모순이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았다는 관점에서 부마항쟁 이전 유신체제 하에서의 반독재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이후 정치 상황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부마항쟁의 역사적 위상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임현진·윤상철(2000)은 앞의 임현진 논문의 연장선에서 부마항쟁 전후의 정치 상황의 변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유신체제의 붕괴가 지연된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오늘의 정치 현실, 즉 유신체제의 유제로서의 권위주의적 사회구조를 성찰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필사는 부마항쟁이 유신체제 붕괴의 기폭제가 되었지만, 그것은 때 이른 체제붕괴의

인권침해 사건'을 '진실규명'으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동년 8월 25일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사)와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가 공동으로 관련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밖에 『부마항쟁 자료집(동아대편)』(정리 : 박철규, 신은제, 2003) 등이 발간 되는 등 2000년대 들어서 새로운 구술 증언을 통한 자료 발굴 노력이 다방면에서 계속되었다.

서막일 뿐이었다고 파악하고 있다. 김경호(2000) 또한 부마의 한국정치사적 위상을 짚어 본 논문인데, 이 글에서 그는 부마항쟁의 정치사적 의미를 유신정권 붕괴의 결정적 계기, 한국민주화운동의 분수령, 민중생존권의 확보투쟁 등으로 요약하였다. 그는 특히 부마항쟁이 4월 혁명 이후 처음으로 민중항쟁의 지평을 열었고, 학생운동이나 소수 명망가들에게 국한되어 있던 1970년대의 그 어떤 반독재민주화운동보다도 정권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고 평가했다.

1979년 11월부터 1980년 5월까지를 1961년부터 1992년까지 지속된 군부권위주의체제라는 ‘장기구조’에 있어서 하나의 ‘과도기레짐’으로 파악하고 있는 정근식(2000)의 한국민주화운동사에 대한 인식체계 또한 독특하다. 그는 부마항쟁을 사건사가 아니라 국면사적인 시각에서 광주항쟁과의 직접적 연관성을 도출해내려고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정근식(2000)에서는 항쟁의 배경과 그 귀결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해서 광주항쟁이 부마항쟁이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었던 것의 완전한 실현을 위한 투쟁이었다는 점, 즉 두 사건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마항쟁이 전국적 위상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역적 의미만을 갖는 사건으로 전락되어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강조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지녀왔던 부마항쟁에 대한 인식의 한계를 지적한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 김석준(2000)은 부마항쟁을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아니나, 박정희 시대인 1960~70년대 민주화운동을 각 지역별로 계량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지역운동으로서 부마항쟁이 박정희 시대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 어떠한 위치를 점하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었다.

2003년에는 부마항쟁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총괄적인 연구성

과로 『부마항쟁연구논총』이 발간되었다. 이는 그동안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온 부마항쟁을 공동연구를 통해 심화하려는 시도로 부마항쟁을 기념하는 주관단체로서 민주공원이 발간 주체였다는 점도 나름대로 의미를 지닌다. 이 연구논총에는 총론적인 성격의 글인 이행봉의 「부마민주항쟁의 개관, 성격 및 역사적 의의」를 포함하여 모두 10편의 논문이 실렸다. 그 가운데 손호철, 홍장표·정이근, 김석준이 각각 부마항쟁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하였고, 박철규와 주무현은 부마항쟁과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의 관련성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또 차성수의 글은 부마항쟁 전후 부산지역 내 정치적 지형의 변화를 지역사회운동과 1978년부터 1985년까지의 역대 선거 결과 등의 분석을 통해 밝힘으로써 부산과 마산의 지역사회에 미친 정치적 영향을 검토하였다. 반면에, 오재환은 부마항쟁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성장이라는 관점에서 지역문화운동의 성장과 변화과정을 조망하였다.

이밖에 정주신은 부마항쟁이 5·18광주민중항쟁의 배경요인이었다는 관점에서 양자를 비교 분석하였고, 김진영은 부마항쟁과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연관성을 밝혔다. 특히 후자는 지금까지 통사적 서술에서만 언급되어왔던 양서협동조합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연구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¹⁵⁾ 양서조합에 대한 관심은 이후에도 이어져¹⁶⁾ 2009년 10월 9일에는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

15) 양서협동조합에 대한 서술은 『부산민주운동사』에서도 비교적 상세히 언급되어 있다. 『부산민주운동사』 324~341쪽에서는 양서조합의 역할을 1978~1979년 부산지역 민주화운동의 인큐베이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성격과 역사적 의미에 대한 학술적인 분석보다는 양서조합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인물들의 증언을 통해 양서조합의 실상을 밝히는데 서술의 중점을 두었다.

16) 양서조합과 관련해서는 차성환(2004a))의 논문은 그 내용에 있어서 김진영의 논문과 큰 차이는 없다. 다만, 김진영이 부산양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서술한

년 전국 학술 심포지움이 ‘박정희 체제와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이란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된 데 이어 동년 10월 30일에는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양서협동조합운동’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움이 부산에서 개최되었다.¹⁷⁾ 뒤이어 2010년 10월에는 부마민주항쟁 31주년·5·18광주민중항쟁 30주년 기념행사로 ‘양서협동조합의 지역적 전개’라는 주제의 학술 심포지움이 광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이제 1970~80년대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의미가 전국적 차원에서 재조명되기에 이르렀다.¹⁸⁾

2003년 연구논총 발간 이후에도 부마항쟁에 대한 연구는 계속되었다. 먼저 학술지에 통해 발표된 연구 성과로는 김원(2006), 이은진(2006), 차성환(2007), 차성환(2008)의 논문이 있다.¹⁹⁾ 이 가운데 2006년에 발표된 김원의 논문은 부마항쟁에 참여한 도시하층민에 주목하여 부마항쟁에 이들이 참여하게 된 배경과 항쟁과

데 반해 차성환(2004b)의 논문은 부산양서협동조합은 물론 각 지역 양서협동조합운동의 전말을 함께 정리하였다.

- 17) 2009년 10월 30일 부산에서 개최된 학술심포지움에서는 「양서협동조합의 기원과 성격」이란 제목의 차성환의 기조발제와 더불어 김희옥(부산), 박진해(마산), 진영우(울산), 김균식(대구), 오균현(서울), 김현주(광주), 고정석(수원) 등의 각 지역 사례에 관한 발제가 있었다.
- 18) 2010년 10월 15일 광주에서 개최된 학술심포지움에서는 황일봉의 「광주양서협동조합과 5·18민중항쟁」이란 제목의 발표를 비롯하여 고정석·유동민·한경호(수원), 오균현(서울), 김희옥(부산), 김형기(부산), 김균식(대구), 진영우(울산)의 지역사례 발제가 있었다. 2010년 광주 학술행사의 발표 내용은 일부 새로운 발제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발제문은 2009년 부산 학술행사 때의 발제 내용을 약간 보완한 것이다.
- 19) 이밖에 연구 논문은 아니지만 부마항쟁에 관한 새로운 사실을 소개한 서정근, 「부마민주항쟁 투입 해병대의 ‘아름다운 휴가」 (2007, 신동아 11월호)가 있다. 이 글은 1979년 10월 부마 진압을 위해 부산과 마산에 진주한 해병대의 활동을 광주항쟁과의 비교적 관점에서 정리한 것으로 사료적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단행본 『해방 60년의 한국정치』에 실린 손호철의 「1979년 부마항쟁의 재조명~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가 있으나, 이는 2003년의 연구 논총에 실린 것을 옮겨 실은 것이다.

정에서의 역할과 위상을 적극적으로 분석한 글이다. 그는 부마항쟁이 ‘도시봉기’의 성격을 띠었을 만큼 도시하층민의 참여와 역할이 두드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주목하지 않은 것은 당시 운동진영에서 도시하층민이 타자화 되었던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은 이른바 ‘대중독재론’의 시각에서 1970년대 박정희 시대를 바라보던 연구경향에 대한 반론적인 성격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다만, 이 글에서 주장하듯이 당시 부마항쟁에 참여한 학생층을 제외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층 전체를 도시하층민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적합한지는 이후 적잖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²⁰⁾

김원이 부마항쟁의 주된 참여층으로서 도시하층민을 설정하였던 데 반하여, 이은진(2006)은 왜 마산시위가 부산시위보다 격렬했으면서도 짧은 시간에 시위가 종결되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 의문의 해결을 위해서 이은진은 10·18 마산항쟁의 주된 참여층을 학생층, 유랑 지식인, 조직 노동자층, 주변 노동자층으로 구분하고, 이들의 참여 동기를 증언 구술과 재판기록의 분석을 통해 다각적으로 밝혀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는 개인들의 이해관계를 넘어서서 집합적인 사회적 이해관계가 형성되는 계기와 메커니즘을 규명하였다.

차성환(2007/2008)의 두 논문 역시 김원과 이은진처럼 부마항쟁의 참여층을 분석하였다. 다만, 차성환의 연구는 참가자의 구술을 토대로 한 생애사적인 접근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연구 성과이다. 차성환은 두 논문에서 각각 3명씩 총 6명 노동자의 부마항쟁 참여 사례를 가지고 부마항쟁 참여노동자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그는 부마항쟁 연구와 관련

20) 이와 관련된 논의에 대해서는 정태석(2009) 등을 참조할 것.

하여 생애사적 접근이 중요한 이유를 부마항쟁이 짧은 기간에 다중이 참여한 사건이라는 점과 신빙성 있는 관련 기록이 매우 적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²¹⁾ 이 점에서 차성환이 시도한 생애사적 접근 방법은 그동안 사료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연구방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는 이러한 시도를 더욱 확장하여 부마항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대한 광범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2009년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이란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부산대학교 대학원)을 완성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이 부마항쟁 참가자들의 참여 동기와 배경을 밝히는 것은 부마항쟁 연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연구 과제이다. 이러한 연구가 여러 측면에서 심화된 것은 2000년대 후반 연구의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부마항쟁 연구의 대미를 장식한 것은 민주공원 민주주의 사회연구소가 2009년 12월 간행한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이다. 이 책은 2009년 10월 9일 서울에서 개최한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전국 학술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논문들을 정리하여 출간한 것이다. 모두 6편의 논문과 함께 각 논문에 대한 토론 요지도 첨부되어 있다. 그 가운데 서중석(2009)은 4월 혁명 이후 6월 항쟁에 이르는 한국 민주화 운동사에서 차지하는 부마항쟁의 위상을 되짚어 본 것이다. 이 글에서는 부마항쟁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 일어났던 민주화 운동 경험과 기억 속에서 통찰하고, 이 운동이 유신체제의 붕괴를 초래한 김재규의 10·26거사에 직접적인 계기였음을 적극적으로 평가하였다. 김삼봉(2009)은 지금까지의 연구들과는 다른 특이한 방법으로 부마항쟁에 접근하였다. 그는 부마항쟁 사건의

21) 차성환(2008), 28쪽.

진실과 관련하여 어떻게 박정희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 가능했는가, 왜 그 사건이 하필 부산과 마산에서 일어났는가, 왜 그 엄청난 사건이 잊혀졌는가 등에 대한 물음을 던지면서 그 해답을 저항 주체들의 내면적 성찰의 결과인 ‘부끄러움’에서 찾았다. 즉 4월 혁명 이후 너무도 오랫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부산과 마산의 대학생들이 느꼈던 부끄러움이 도리어 그 곳에서 것처럼 커다란 봉기를 가능하게 했던 까닭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지점에서 그는 양서협동조합이 부산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특별한 주목을 하고 있다. 김삼봉의 논문은 지역 운동사에 정신사적인 관점을 접목시켜서 부마항쟁을 재해석하였다는 의미가 있다.

정태석(2009)은 부마항쟁의 성격에 관한 기존의 견해들을 운동론적 관점에서 정리 분석한 것이다. 이 논문에 의하면 부마항쟁에 대한 운동론적 해석은 민주항쟁론, 민중항쟁론, 도시봉기론으로 구분된다. 정태석은 이 운동론들을 항쟁주체, 조직화의 성격, 항쟁 동기/원인, 항쟁 목표/요구, 항쟁 방식 등을 분석 지표로 해서 비교하였다. 정태석 자신의 관점은 한마디로 “기층 민중이라 부르든 도시하층민이라고 부르든 부마항쟁의 중심적인 주체는 넓은 의미에서의 민중이었다”²²⁾로 요약할 수 있다. 따라서 부마항쟁의 운동론적 성격은 목표와 요구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한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경제적 불만의 해결을 요구한 민중운동의 성격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부마항쟁은 하나의 통일된 목표를 가지기보다는 다양한 목표와 요구를 가진 다양한 민중들이 참여한 ‘복합적 민중항쟁’으로 규정된다.²³⁾ 여기서 부

22) 정태석(2009), 156쪽

23) 위의 논문, 165~166쪽.

마항쟁은 민주화운동의 맥락 속에서만 위치지을 수 없는 복합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 점은 6월항쟁의 복합성과도 유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다.²⁴⁾

한홍구(2009)는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중항쟁을 비교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그는 시위에 대한 집권블럭의 대응방식을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이 글에서 한홍구는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중항쟁은 집권블럭의 대응방식의 강도에 큰 차이가 있지만, 부마항쟁의 시작에서 광주항쟁의 장엄한 패배까지를 민주주의를 향한 하나의 운동기간, 이행기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장기지속적 관점에서 본 한국민주운동사의 새로운 시기구분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은진(2009)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서 지역의 민주화운동이 미친 영향을 평가하려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는 지역의 민주화운동은 3·15의거와 10·18 마산민주항쟁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초점은 부마항쟁에 맞추어져 있다. 특히 이 글에서 이은진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민주화 운동의 지역적 전이성이며, 이 지점에서 그는 과거에 일어난 항쟁의 지역적 확산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부마항쟁과 관련해서는 당시에 민주화운동의 전이가 왜 특정 범위에서 머무르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교통과 소통구조, 사회관계적 맥락, 그리고 역사적 경험이나 상징의 공유 등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그는 대한민국의 역사가 중앙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균질적이지 않은 다양한 무대의 연속적이고 다른 형태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조정관(2009)은 한국 민주화에서 부마항쟁의 역할을 다양한 각

24) 위의 논문, 174쪽.

도에서 평가한 글이다. 그는 부마항쟁의 역할을 크게 유신정권의 붕괴와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발전에의 기여로 평가하였다. 그 역사적 의미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위한 독특한 정치적 기회를 제공하고, 5·18광주민중항쟁과 더불어 학생운동의 강력한 투쟁성을 촉진하였으며, 광주5·18민중항쟁과 함께 민중의 조직화에 대한 절대적 필요를 1980년대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 제시했으며, 유신의 선전 프레임을 깨트리고 민주화를 필연적으로 만들어가는 프레임을 제공한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밖에 부마항쟁과 관련해서 개인 연구저작으로 김하기(2004)와 이은진(2008)의 저서가 발간되었다. 전자는 『부산민주운동사』 등 기존의 연구성과를 토대로 부마항쟁을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쓴 것이고, 후자는 부마항쟁 직후인 1980년 신군부 시절, 육군고등군법회가 만든 『부마사건 재판기록』 중 마산항쟁에 관한 자료를 중심으로 마산항쟁을 새롭게 분석하고 당시의 상황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저작이다. 이은진의 저작은 참가자들의 구술증언에 주로 많이 의존해 왔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정부측의 핵심적인 공식 문서를 바탕으로 부마항쟁을 조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 여기에 인용되거나 수록된 많은 자료들은 향후 부마항쟁 연구에 크게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Ⅲ. 쟁점별 연구 성과의 비교 분석

1. 원인과 배경

부마항쟁의 원인과 배경은 지금까지 부마항쟁의 성격 규명과도 연관된 가장 핵심적인 연구 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일찍부터 많은 연구자들 사이에 쟁점이 되었던 문제는 왜 1970년대 전반에 걸쳐서 학생운동이 상대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부산에서 1979년 10월 갑자기 부산대학생들의 가두시위가 발생했으며, 이것이 일거에 대규모 항쟁으로 발전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냐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부마항쟁의 원인을 지역운동사적 관점에서 내재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내재적 연구 방법은 편의상 그 강조점과 관심에 따라 정치사적인 분석과 사회경제사적 분석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이 경우 전자는 주로 1970년대 부산지역 운동세력의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중부교회를 중심으로 한 민주운동세력의 성장과 이들이 부산대학 등 학생운동 세력의 형성에 미친 영향, 그리고 이들과 밀접히 연관된 양서협동조합운동 등의 역할을 주목하였다. 그 의도는 1979년의 부마항쟁이 자연발생적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부산지역 운동세력의 정치적 성장에 따른 필연적 결과임을 밝히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산지역의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접근 방식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은 YH사건에 이은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이 부마항쟁을 촉발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은 사실

이지만, 항쟁의 동력은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이 발생되기 이전 시기부터 이미 내부적으로 축적되어 온 것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²⁵⁾

후자의 경우는 항쟁의 발발 그 자체보다는 그 전개과정에 더욱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화적으로 시작된 시위가 왜 시간이 흐르면서 과격한 폭력투쟁의 성격으로 바뀌어 갔느냐에 대한 의문을 항쟁의 발생 원인과 연관시켜 해석하려는 것이다. 이 경우 연구자들은 부산지역과 마산지역의 산업구조가 지닌 지역적 특수성과 1970년대 말의 경제적 위기 등을 부마항쟁의 직접적인 발생 원인으로 인식한다. 부산·마산지역의 저임금 노동자층의 두터운 형성과 반프로의 형성 등이 부마항쟁 발생의 보다 근원적인 원인으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다. 연구사적으로 보면 2010년대 들어서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더욱 더 활성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²⁶⁾

앞에서 지적한 내재적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부마항쟁의 발생 원인을 1970년대 유신체제가 지닌 모순으로부터 직접 도출하려는 연구 경향도 무시할 수 없다. 이 경우는 부마항쟁의 지역적 특성을 염두에 두면서도 유신체제의 모순으로 야기된 유신말기의 정치변동과 반유신투쟁이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에 보다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때문에 이 경우는 대체로 긴급조치로 대표되는 유신체제의 위기적 상황과 더불어 한미갈등 등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유신말기에 진행된 일련의 정치적 위기, 즉 YH사건과 김영삼총재 제명 사건을 부마항쟁 발생의 직접적

25) 이러한 인식은 대표적으로 정광민(1989)을 들 수 있는데,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계승해 오고 있다.

26) 이 점과 관련해서는 특히 이은진과 차성환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연구 성과들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인 계기로 파악한다.²⁷⁾ 부마항쟁을 단순히 지역운동사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한국민주운동사의 전체적 시각에서 파악하려할 때 이러한 접근 방법이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내재적 시각과 외재적 시각이 양립할 수 없는 상호모순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통합적 시각에서 바라볼 때 부마항쟁의 실체적인 진실에 더욱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음을 두말할 필요가 없다. 오늘날 부마항쟁에 관한 통사적 연구들은 대체로 여기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2. 항쟁의 주체와 참여층

부마항쟁의 주체에 관한 문제 또한 가장 논쟁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지금까지의 주류적인 견해는 초기에 항쟁의 불을 집힌 것은 학생층이지만, 항쟁에 뛰어들어 적극적으로 투쟁의 불길을 확산시킨 것은 도시의 노동자, 소시민 등 민중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항쟁의 전개과정을 볼 때 부산과 마산 양 지역 모두에서 확인되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저녁이 되어서 일반시민들의 참가가 늘어났고, 시위 또한 과격한 양상으로 변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당시 시위 현장에서 체포되어 기소된 주도층의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부마항쟁에 참여한 시민층 가운데 어떠한 계층 또는 어떠한 사회집단이 보다 더 중심적인 역할을 했느냐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해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그 가운데 항쟁의 주체로서 학생층의 역할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평가하려는 견해는 1970년대 부산지역 민주운동의 내재적 발전에 많은 관심을 두면

27) 손호철(2003) 및 손호철(2006) 참조.

서, 부마항쟁에서 시위 학생들이 보여 주었던 반유신적 정치투쟁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 중부교회, 양서협동조합 등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지역사회조직이 부산 지역의 학생운동조직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²⁸⁾ 물론 학생층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들도 큰 틀에서는 부마항쟁의 민중적 성격에 동의한다. 부마항쟁에 대한 학생주도론적인 해석은 민주운동론으로 연결될 수 있지만, 이것이 민중론과 논리적 반드시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이 경우 부마항쟁은 민중민주운동론으로 수렴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마항쟁에서 학생층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와는 다소 대조적으로 노동자 등 시민층의 참여와 이들의 주도성에 관심을 보이는 연구경향도 있다. 운동론적으로 민중론의 입장에 있는 이러한 연구경향의 연구자들은 시민층, 그 가운데서도 특히 항쟁 주체로서 노동자들의 참여를 중시한다. 비록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적극적으로 포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적 구성에서 이들이 다수를 차지했고 이들의 투쟁 방식이 매우 적극적이고 과격하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부마항쟁이 있기 이전 다른 지역의 반유신투쟁에서는 이처럼 노동자들이 시위에 적극적으로 집단적으로 참여한 예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부마항쟁에서 노동자들의 참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어 온 차성환(2009)은 기존의 민중항쟁론이 민중의 실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음을 비판하면서 ‘집합사고(collective thinking)를 통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행동하는 합리적 민중상’을 설정하고, 이를 실증하기 위해서 참여 노동자들의 항쟁 체험을 재현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²⁹⁾ 이러한 노동자들의 항쟁

28) 정광민(1989)는 물론 『부산민주운동사』 또한 이러한 관점에 비교적 충실하다.

참여는 1980년 5·18광주민중항쟁은 물론 그 이후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도 지속되었으며, 이 점에서 부마항쟁은 1980년대 노동자투쟁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부마항쟁은 그 항쟁 양상에서 1970년대 반유신투쟁보다는 1980년대 반독재민중운동과 더 유사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밖에 참여 노동자들의 행위가 왜 급진적이었는가에 대해서는 당시 부산과 마산의 경제사정과 노동자 현실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평가가 존재한다.³⁰⁾

부마항쟁의 주체를 단지 노동자에 국한 시킬 수 없다는 견지에서, 항쟁의 전개과정에서 일어난 폭력적 양상에 주목하여 참여 민중들의 중심세력을 도시빈민으로 규정하는 소수의 견해도 있다. 또 이러한 항쟁 주도세력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부마항쟁의 운동론적 성격을 범주화한 연구로 앞에서 언급한 김원(2006)의 연구를 참조할 수 있다.

3. 부마항쟁의 역사적 위상과 자리매김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위상에 대해서 큰 의견의 충돌이나 논란이 형성된 적은 거의 없다. 거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부마항쟁이 1970년대 유체제의 붕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유신 반독재민주화투쟁이었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달지 않는다.³¹⁾ 또 부마항쟁을 한국 민주화의 역사 속에서 평가

29) 차성환(2009) 참조. 특히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같은 논문, 3~10쪽 참조.

30) 주 26)과 같음.

31) 다만, 이 점에 대해서 정근식이 부마항쟁 간과론의 역작용으로 지적한 과대평가론에 대해서 잠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과대평가론이란 ‘부마항쟁을 4월혁명 이후 최대 도시민중봉기이며, 유신헌제를 무너뜨린 역사적 사건으로 보는’ 견해를 일컫는다. 정근식(2000), 249쪽 참조.

하면, ‘이승만~박정희~전두환’으로 이어진 억압적 독재정권들에 대하여 4월혁명~부마항쟁~광주민주항쟁~6월민주항쟁 등으로 대응해온 일련의 민주항쟁사에서 부마항쟁이 하나의 변곡점으로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동의한다. 이러한 논리의 연장에서 부마항쟁이 광주항쟁을 비롯한 1980년대 민주화투쟁의 가교적 역할을 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부산민주운동사』(1998)에서는 부마항쟁은 1970년대 유신체제 붕괴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한 점 외에도, 부마항쟁의 또 다른 성과는 민주화운동의 질적 도약을 선도하였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³²⁾ 또 이와는 강조점을 다소 달리하여 『한국민주화운동사』(2008)에서는 박정희의 죽음이나 유신체제 붕괴가 부마항쟁의 직접적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는 있지만,³³⁾ 부마항쟁이 “광주민주항쟁이나 6월민주항쟁 당시 대중들을 거리로 다시 불러내게 만든 체험과 학습의 일대 발판”³⁴⁾이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역사적 의의를 지닌다. 이처럼 『한국민주화운동사』에서도 『부산민주운동사』의 부마항쟁 인식이 기본적으로는 답습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³⁵⁾

32) 『부산민주운동사』, 387쪽 참조.

33) 『한국민주화운동사』 2, 353쪽.

34) 위의 책, 356쪽.

35) 『부산민주운동사』와 『한국민주화운동사』는 큰 틀에서 볼 때 역사인식에서 뿐만 아니라 역사서술에서도 큰 유사성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아래에 제시된 양자의 목차만 비교해 보아도 이러한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부산민주운동사』의 목차 :

1. 부산민주항쟁의 발생배경: 유신체제의 억압적 정치경제구조와 부산지역의 특수성, 부산지역 운동세력의 성장과 재생산기반의 구축
2. 부마민주항쟁의 발발과 부산지역에서의 그 전개: 부산대학교 교내시위의 분출과 시가지 진출, 도심지 민주항쟁의 폭발과 확산, 그리고 종결
3. 부마민주항쟁의 성격과 그 역사적 의의: 부마민주항쟁의 귀결과 그 성격,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한계

그러나 부마항쟁의 역사적 자리매김을 좀 세밀하게 분석하면, 유신반대투쟁으로서의 성격을 강조하는 경우와 광주항쟁의 전사로서 부마항쟁의 위치를 강조하는 경우는 그 위상에 있어서 다소간 차이를 드러내기도 한다. 그동안의 연구를 보면 전자보다는 후자에 대한 관심이 더 집중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중항쟁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자들에게서 잘 나타난다. 그러나 부마항쟁의 목표가 유신체제의 철폐에 있었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어서 한국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두 사건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부마항쟁을 1970년대의 반유신투쟁으로부터 분리하여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범주로 시기구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³⁶⁾

그밖에 부마항쟁을 지역에 국한된 민주화운동으로 볼 것인가도 하나의 쟁점으로 되어 왔다. 물론 이러한 의문은 주로 부산지역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기되었다.³⁷⁾ 이 경우 지역운동의 개념과 지역운동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또 다른 하나의 문제제기로 될 가능성이 있다.³⁸⁾ 그러나 이러한 문제제기는 실제로 부마항쟁

* 『한국민주화운동사』(2009)의 목차 :

1. 부마항쟁의 발생 배경 : 유신체제 말기의 사회, 정치적 위기구조, 부산·마산 지역의 위기상황, 지역 민주화운동세력의 성장
2. 부산지역 항쟁 : 항쟁의 발단 : 부산대 교내시위의 분출과 시가지 진출, 도심지 민중항쟁의 폭발과 확산, 계엄령 선포와 부산지역 항쟁의 종료
3. 마산지역 항쟁 : 마산지역 민중항쟁의 폭발과 확산, 위수령과 마산지역 항쟁의 종료
4. 부마항쟁의 귀결과 의의: 10.26정변과 박정희 피살, 유신체제의 붕괴, 민주화운동 대중화의 기초.

36)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부마항쟁과 광주항쟁을 하나의 연속적인 운동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양자를 완전히 同位的 성격의 운동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임현진(2000)처럼 제5공화국도 유신의 연장으로 보면 달리 해석될 수는 있다.

37) 『부산민주운동사』 서문 참조.

을 지역운동으로 축소 또는 과소평가하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다는 부마항쟁에 대한 연구와 관심의 부족에 대한 자기반성적 측면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³⁹⁾

4. 그 밖의 문제들

부마항쟁과 관련된 여러 논의 가운데 계엄군의 진압 방식이나 그로 인한 피해 사례도 주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이는 부마항쟁에 대한 진압 방식이 그 이전 유신 반대 시위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폭압적이고 반인권적이었으며, 이러한 진압 방식은 이듬해 광주민중항쟁 과정에서도 더욱 더 극렬한 방식으로 재현되었다는 사실과 관계가 있다. 실제로 부마항쟁 과정에서는 진압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나돌 정도로 진압이 전례 없이 무자비하고 잔혹했다는 주장이 많았다. 다만, 이에 대해서 피해자의 구술증언은 있어왔으나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근거 자료가 없어 그 잔혹함과 인권 침해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어 왔던 것이다.

38) 사실 지금까지 연구자들 사이에 ‘지역운동’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게 사용되어 온 점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지역운동을 지역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지역 내의 운동으로 정의할 것인지, 아니면 지역에서 일어난 모든 운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할 것인지가 논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39) 이 문제는 최근 2009년 12월에 민주주의사회연구소 연구총서8로 발간된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의 발간사에도 잘 드러나 있다. 해당 부분을 직접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부산 지역 민주운동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부마항쟁이 마치 지역운동이나 어떤 부문운동이었던 것처럼 폄하되고 있는 현상을 극복하고, 항쟁의 본래적 의의로서 정치성을 복원하고 계승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70년대 당시의 부문운동 및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실태 조사 작업이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앞의 책, 8쪽)

진압 방식에 관한 논의는 부마항쟁을 5·18 광주민주항쟁과 비교하는 과정에서 주로 짚어졌다. 그러나 부마항쟁에 대한 진압과 탄압의 실체는 지난 2010년 5월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 결정에 의해 비로소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⁴⁰⁾ 즉,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다음 두가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 부마항쟁의 진압과정에서 계엄군, 경찰에 의해 학생, 시민들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거나 인권침해를 받은 점이 인정되고, 수사과정에서 연행된 시민, 학생들이 불법구금, 구타, 성희롱 등 가혹행위로 인한 인권침해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둘째, 1979년 10월 20일 12시 마산지역에 발동된 위수령은 법정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이다. 위수령이 발동되기 이전 군부대가 투입되어 진압작전에 참여하였으며 시위대를 연행하여 부당한 공권력을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⁴¹⁾ 결정문의 결론에서는 국가는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에 대하여 관련 피해자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피해 구제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하였다.⁴²⁾ 결정문에는 비록 사망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곤봉과 총 개머리판으로 머리 등을 구타하여 뇌손상, 뇌경막 손상의 상해를 입힌 사례 등 계엄군의 시민 폭행에 관한 광범위한 사례를 제시하고

40)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 이규정·차성환이 부마민주항쟁의 시위과정 및 수사과정에서 학생·시민들이 경찰, 군인 등 국가공권력의 불법구금, 가혹행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으므로 이를 조사해달라고 2006년 11월 30일 진화위에 신청한 것에 대하여 2010년 5월 25일 동 위원회의 이름으로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하였다.

41) 「‘부마항쟁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 결정문」(진실화해위원회, 2010, 5. 25), 1쪽.

42) 위의 글, 44쪽.

있다. 그동안 참가자들이 주장해왔던 계엄군의 무자비한 폭행이 거의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부마항쟁 당시 계엄군의 진압 방식은 비록 1980년 광주항쟁 당시의 수준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두 사건의 유사성을 설명하는 유력한 근거로 제시되어 왔는데 이제 그것이 정부의 공식기관에 의해 입증된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마항쟁과 관련된 연구사적 논쟁 가운데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부마항쟁은 왜 잊혀졌는가’의 문제가 있다. 이 질문은 오랫동안 특히 부산지역 연구자들을 괴롭혀온 난제에 속한다. 이 점에 대해서 조정관(2008)은 기존의 논의를 종합하면서 5·18광주민중항쟁과 비교하여 부마항쟁이 잊혀진 항쟁이 된 이유를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즉, ① 두 사건(부마항쟁과 5·18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순서와 규모의 차이, ②부마항쟁의 상대방인 유신체제가 항쟁과 더불어 바로 종료함으로써 1980년대 민주화과정에서 담론투쟁의 초점이 되지 못한 점, ③ 부마지역의 기억운동주체와 역량의 문제, ④ 1987년 민주화 이후 지역주의 정당정치 및 1990년 3당 합당이 가져온 정치적 기회구조의 폐쇄 등이 그것이다.⁴³⁾ 이 가운데 ①②④는 역사적 사실의 문제로 문제제기에 대한 해명은 되지만, 해결적 대안 제시와는 무관하다. 그러나 ③은 사실상 부산·마산지역 민주운동세력의 역량의 한계를 지적한 것으로 그것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한다면, 해답은 그러한 문제제기 안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은 부마항쟁과 관련된 기억투쟁을 현실의 민주화운동과 어떻게 접맥시켜 지역사회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것인가가 연구자들과 지역 활동가들의 공통된 과제로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3) 조정관(2008), 318쪽.

IV. 맺음말

부마항쟁이 한국 민주운동사에 끼친 영향의 중요성만큼 지난 30여 년 동안 부마항쟁에 관한 많은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부마항쟁 연구는 종전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나 이제는 그 질정에 이른 감마저 없지 않다. 이처럼 최근 부마항쟁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한 민주화의 성취 이후 1998년의 정권 교체와 2003년의 재집권 등 국내 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축적이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한국 민주운동사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부마항쟁 연구의 파급효과로 1970년대 한국정치사를 비롯하여 현대 부산지역의 사회사, 노동운동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또한 높아진 점도 그 부수적인 의의로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예컨대, 근래 들어 부쩍 높아진 1970년대 부산지역 노동자의 실태 연구나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열기도 사실상 부마항쟁 연구의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부마항쟁 연구는 초기 단계에서는 부산과 마산지역에 있는 지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점차 서울을 비롯한 외부 지역 연구자들도 부마항쟁 연구에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부마항쟁에 대한 인식 수준도 1979년 부마항쟁 당시의 지역사적 관심을 넘어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5·18광주민중항쟁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더욱 심화되어 왔다. 이제 부마항쟁 연구는 그것이 지닌 민주운동사적인 의의와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1980년대 이래 지역 내

정치지형의 변화, 시민운동 조직과 정치의식의 발전 등에 관한 연구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마항쟁의 연구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던 부마항쟁에 대한 기억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러한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의 핵심적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부마항쟁이 오늘날 부산과 마산지역 주민들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부마항쟁의 지역 내 위상과 관련하여 그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반추해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밖에 새로운 증언의 수집,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관변자료에 대한 정리와 분석 등은 그 자체로 부마항쟁 연구의 기초 작업이자 부마항쟁 연구를 심화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하다.

요컨대 오늘 이 시점에서 부마항쟁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그것은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대한 자문이기도 하다. 그것은 오늘 지역 내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에 따라 그 의미 부여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한 의미에서 부마항쟁에 대한 연구의 심화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진전과 결코 무관할 수 없다. 부마항쟁 연구와 관련된 향후의 구체적 실천 과제에 대한 해답도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 구모룡 외, 1986, 『부산, 공동체를 위하여』 부산, 동보서적.
- 조갑제, 1987, 『有故!: 부마사태에서 10·26 정변까지 유신정권을 붕괴시킨 함성과 총성의 현장』 (1)(2), 서울, 한길사.
- 5·18광주민주항쟁동지회 편, 1990, 『부마에서 광주까지』 광주, 도서출판 샘물.
- 김재홍, 1994, 『박정희 살해사건 비공개진술·상』 서울, 동아일보사.
- 부산민주운동사편찬위원회 편, 1998, 『부산민주운동사』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 이은진, 1999, 『노동자 의식의 변천: 노동자 수기 분석, 노동자가 빠진 수렁』 마산, 경남대학교 출판부.
- 김홍석, 2002, 『부산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전망』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김선미 · 이일래 · 신선영, 2003, 『부산민주운동사』 부산, 민주공원.
- 민주공원 편, 2003a,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부산, 민주공원.
- 민주공원 편, 2003b, 『부산지역 민주화운동 관련 인명록발간사업 최종보고서』 부산, 민주공원
- 이병천, 2003, 『개발독재와 박정희시대』 서울, 창비.
- 김하기, 2004, 『부마민주항쟁』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김대곤, 2005, 『김재규 X~파일』 서울, 도서출판 산하.
- 김주완, 2005, 『토호세력의 뿌리』 마산, 도서출판 불휘.
- 김 원, 2005,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서울, 이매진.
- 안병욱 외, 2005, 『유신과 반유신』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7, 『부산사회 : 진단과 처방』 부산, 경성대학교 출판부.

- 김수행·박승호, 2007, 『박정희체제의 성립과 전개 및 몰락』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민주주의사회연구소 편, 2008, 『부산민중의 삶과 정치의식』 부산, 민주공원.
- 이은진, 2008. 『1979년 마산의 부마민주항쟁~ 육군고등군법회의 자료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마산, 도서출판 불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엮음, 2008, 『한국민주화운동사』 서울, 돌베개.

[논 문]

- 박영주, 1985, 「마산민주항쟁의 전개과정」 『마산문화』 제4호.
- 이수언, 1985, 「부마사태의 전모를 밝힌다」 『신동아』 1985년 5월호.
- 한국기독교협의회 인권위원회, 1986, 「부마항쟁」 『1970년대 민주화운동(IV)』 서울, 동광출판사.
- 김영명, 1987, 「한국의 정치변동과 유신체제」 『현대 한국정치와 국가』 (한국정치학회 편), 서울, 법문사.
- 정광민, 1989, 「부마항쟁 10년 되새겨보는 역사적 의미」 『사회와 사상』 통권 15호.
- 이은진, 1998, 「구조냐 행위주체냐: 10·18 마산민주항쟁의 해석」 『사회연구』 제11집.
- 김성국, 1997, 「부산인의 개방성과 저항의식」 『부산사회문화의 이해』 (부산발전연구원 편), 부산, 부산발전연구원.
- 박철규, 1999. 「5·18 민중항쟁과 부마항쟁」 『5·18은 끝났는가』 (한국학술단체협의회 편), 서울, 푸른숲.
- 정근식, 1999, 「한국 민주화와 부마항쟁」 『부마항쟁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부마민주항쟁20주년기념사업회 편, 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 주대환, 1999, 「부마항쟁과 시민정신」(부마항쟁20주년기념 학술 심포지움 발제문).
- 임현진, 2000, 「민주화의 전주곡으로서 부마항쟁: 유신체제의 지연된 붕괴」 『한국민주화 운동의 민족사적, 세계사적 의의 : 부마, 광주와 한국과 세계의 민주화』 (한국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논문집)
- 임현진·윤상철, 2000, 「유신체제는 끝났는가?: 붕괴의 조건과 오늘날의 현실」 『박정희 시대의 한국 : 국가·시민사회·동맹체제』 (한국정치학회 기획학술회의 논문집)
- 김경호, 2000, 「부마민주항쟁의 배경과 정치사적 의의」 『21세기 정치학회보』 제10집 1호.
- 김석준, 2000, 「박정희 시대 민주화운동에 대한 고찰」 최장집 외, 『한국민주주의의 회고와 전망』 부산, 도서출판 한가람.
- 정근식, 2000, 「부마항쟁과 79~80레짐」 『지역사회학』 제2호, 한울.
- 김석준, 2003, 「부마민주항쟁의 사회문화적 배경」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편)
- 김진영, 2003, 「부마민주항쟁과 양서협동조합」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박철규, 2003, 「부마민주항쟁과 학생운동」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손호철, 2003, 「부마민주항쟁의 정치적 배경」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오재환, 2003, 「부마민주항쟁과 부산지역사회의 변화」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이행봉, 2003, 「부마민주항쟁의 개관, 성격 및 역사적 의의」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정주신, 2003,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주무현, 2003, 「부마민주항쟁과 노동운동」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차성수, 2003, 「부마민주항쟁과 부산정치지형의 변화」 『부마민주항쟁연구논총』
- 홍장표·정이근, 2003, 「부마민주항쟁의 경제적 배경」 『부마민주항쟁 연구논총』
- 차성환, 2004a, 「양서조합운동의 재조명1~부산양협운동의 전말」 『기억과전망』 통권8호, 민주운동기념사업회.
- 차성환, 2004b, 「양서조합운동의 재조명2~각 지역 양협운동의 전말」 『기억과전망』 통권9호, 민주운동기념사업회.
- 김경일, 2005,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의 쟁점」 『역사비평』 통권 73호.
- 김 원, 2006, 「부마항쟁과 도시하층민~대중독재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제29권 제2호.
- 손호철, 2006, 「1979년 부마항쟁의 재조명 ~ 정치적 배경을 중심으로」 『해방 60년의 한국정치』 서울, 이매진.
- 이은진, 2006, 「10·18 마산민주항쟁의 참여요인」 『가라문화』 제 20집.
- 차성환, 2007, 「부마항쟁과 지역 노동자 대중」 『기억과전망』 통권 17호, 민주운동기념사업회.
- 서정근, 2007, 「부마민주항쟁 투입 해병대의 ‘아름다운 휴가’」 『신동아』 (2007년 11월호)
- 이은진, 2008b, 「비공식분야 종사자들의 1979년 마산민주항쟁 참여 요인」(한국사회학회 발표문).
- 이동운·박준식, 2008, 「민주화과정에서 저항폭력의 정당성」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 조정관, 2008, 「유신체제, 부마항쟁 그리고 80년대 민주화운동」 (3·15의거 48주년 및 부마민주항쟁29주년 학술토론회 자료집)

- 차성환, 2008, 「부마항쟁과 노동자 정치사회화」 『21세기 정치학 회보』 제18집 3호.
- 차성환, 2009, 「참여노동자를 통해서 본 부마항쟁 성격의 재조명」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중석, 2009, 「부마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사) 부설 민주주의사회연구소)
- 김상봉, 2009, 「귀향, 혁명의 시원을 찾아서 ~ 부끄러움에 대하여」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 정태석, 2009, 「부마항쟁의 주체세력과 성격」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 한홍구, 2009, 「놀라운 붕괴, 거룩한 좌절 ~ 부마항쟁과 5·18민주항쟁의 비교 연구」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 이은진, 2009, 「한국의 민주화와 지역의 역할」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 조정관, 2009, 「한국민주화에 있어서 부마항쟁의 역할」 『부마민주항쟁 30주년 기념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재조명』

투고일	심사일	심사완료
2010.11.30	2010.12.20	2010.12.27

【국문초록】

이 글은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체제를 무너뜨리는 기폭제가 된 1979년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지난 30년간의 연구 성과

를 분석한 것이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 하에서 일어난 가장 강력한 반독재민주화투쟁이었으며, 지역사적으로 볼 때도 4월 혁명 이후 부산지역에서 일어난 가장 충격적인 정치적 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부마항쟁기념일이 가까워지면 부마민주항쟁이 왜 역사적으로 온당한 평가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자성과 함께 부마민주항쟁을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그 역사적 의의를 재평가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그동안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연구들이 부산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특히 최근 10여 년 동안 부마항쟁 연구는 종전에 비해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연구가 증가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으로 인한 민주화의 성취 이후 1998년의 정권 교체와 2003년의 재집권 등 국내 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성과의 축적이 양적으로는 물론이고 질적으로도 한국 민주운동사에 있어서 부마민주항쟁의 올바른 위상을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파급효과로 1970년대 한국정치사를 비롯하여 현대 부산지역의 사회사, 노동운동사 연구에 대한 관심이 또한 높아진 점도 그 부수적인 의의로 지적할 수 있다. 예컨대, 근래 들어 부쩍 높아진 1970년대 부산지역 노동자의 실태 연구나 노동운동에 대한 연구 열기도 사실상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활성화와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초기 단계에서는 부산과 마산지역에 있는 지역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부마민주항쟁에 관한 연구들은 198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정치적 변화를 반영하면서 점차 서울을 비롯한 외부 지역 연구자들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인식도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의 지역사적 수준의 관심을 넘어서 1980년대 민주화운동이나 5·18광주민주항쟁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 부마민주항쟁 연구는 민주운동사

적인 의의와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더 나아가 1980년대 이래 지역 내 정치지형의 변화, 시민운동 조직과 정치의식의 발전 등에 관한 연구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마민주항쟁의 연구를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다.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지적해 왔던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기억투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그러한 연구과제의 하나이다. 이러한 과제의 해결은 부마민주항쟁의 핵심적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그것을 어떻게 계승하고 발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더 많은 토론을 요구한다. 또 부마민주항쟁이 오늘날 부산과 마산지역 주민들에게 미친 정신적 영향을 평가하는 것도 부마민주항쟁의 지역 내 위상과 관련하여 그 역사적 성격과 의미를 반추해보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이밖에 새로운 증언의 수집, 여전히 정리되지 못한 관련자료에 대한 정리와 분석 등이 여전히 부마민주항쟁 연구의 질적 심화를 위한 선행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미루어 볼 때 이제 부마민주항쟁 연구는 오늘날 한국의 민주주의의 특성과 발전에 대한 비전을 염두에 두고 그 연구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그것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연구 경향이 끊임 없이 변화해 왔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 당위적 결론이다.

핵심주제어 : 부마민주항쟁, 유신독재체제, 민주운동사, 정치적 변화, 기억투쟁

【Abstract】

**The Researches on the historic Pusan~Masan
Uprising in 1979 : the Achievements and the
Future Tasks**

Hong, Soon Kwon / Dong~a Univ.

Over thirty years has passed since the historic Pusan~Masan Uprising occurred in October, 1979. Immediately after the Uprising, the Yusin dictatorial regime collapsed with the assassination of President Park. Many researches on it have been produced since then, because it heavily affected the following democratic movements in Korea, especially in the 1980s. Most of all, the researches increased rapidly for the recent 10 years.

The growth of researches and concerns on the historic uprisings were due to such a series of domestic political changes as the June Demoratic Uprising in 1987, the transfer of political power in 1998, and the return to democratic power in 2003 etc. The research achievements contributed much to putting the Pusan~Masan Uprising into the right position in terms of the democratic movement history in Korea. The concerns on the social~historical localities of two cities, Pusan and Masan increased as their ripple effects. For example, such recent researches on the workers of 1970s in Pusan and Masan are actually related to the research activities on the Pusan~Masan Uprising.

The earlier researches on the Pusan~Masan Uprising were

produced mainly by the local scholars who were living or working in Pusan or Masan, but gradually the other scholars who were living in Seoul or any other provinces began to be concerned about the problems of the Pusan~Masan Uprising in 1979. Through this course, the category of the themes on the Pusan~Masan Uprising has been enlarged from the problems of the locality to the problem of the comparison with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in 1980 or the June Democratic Uprising in 1987. Now, these research activities produce an effect on some scholars who are studying the history of Democracy in the 1980s and after then, including the themes such as the political changes in local society, the progress of NGO, and the people's political consciousness etc.

Nevertheless, there remain many research tasks to understand the deeper historical meanings of the Uprising in 1979. One of them is to find out the method how we should exercise the struggle for remembranc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e have to discuss more often what is the core ideas of the Pusan~Masan Uprising, and how to preserve them. To evaluate what is the ideological influences that the Pusan~Masan Uprising brought on citizens living in both Pusan and Masan is necessary to ruminate upon its meaning from a local perspective. Furthermore we have to investigate and analyse many materials that have not been discovered yet.

In short, what does the Pusan~Masan Uprising in 1979 mean to us? The answer is a self-question about how we understand the nowadays democracy in Korea. The ability to understand its historical meaning depends on the present level of the

development of local democracy. The answer for the future research tasks on the Pusan~Masan Uprising could be found out just from such a self-question on the Korean democracy itself.

Key words : Pusan~Masan Uprising, Yusin dictatorial regime, democratic movement history, political changes, struggle for remembrance